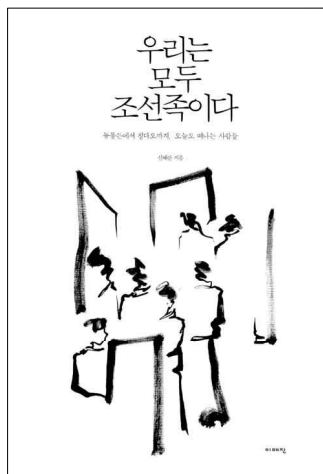


서평

이주의 사회적 의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모두 조선족이다, 뉴몰든에서 칭다오까지,
오늘도 떠나는 사람들』(이매진, 2016)

유광철*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반 이민자정책이 실행되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는 이슬람국가 IS의 횡포를 피해 온 중동의 이민자들이 넘쳐났지만, 이들이 유럽 각국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기에는 아직 요원하다. 전 세계적으로 이주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 시기에, 런던, 칭다오, 서울의 각기 다른 장소에서 마주한 조선족 이주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신혜란 선생님의 『우리는 모두 조선족이다』는 매우 시의 적절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 북경대학교 지역경제학과 박사과정(yookwang1234@naver.com)

이 책에서 저지는 이주자 연구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다.^{1) 2)} 책은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이주가 일상화된 배경설명에서부터 런던, 칭다오,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선족 이주자들의 이주결정과정과 이주지에서의 생활양식, 민족 집거지역 내에서의 계급분화 양상과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폭넓게 서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장에서는 연구대상인 조선족 이주자의 개념정의와 연구지역으로서 런던의 뉴몰든, 칭다오의 청양구, 서울의 가리봉동과 대림동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각각의 장소에서 조선족 이주자들의 계급적 지위와 행동양식의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2장, 3장, 4장은 각각 이주의 계기, 시민권을 매개로한 이주 경로, 이주지에서의 초기 정착과정과 행동양식을 축적된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5장에서는 스카이프,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의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이주 이후에도 송출지역에서의 사회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현대사회에서의 국제이주의 양상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강조했다.

한편, 6, 7, 8장에서는 런던, 칭다오 청양, 가리봉동과 대림동 조선족의 다문화 공간의 형성양상에 관한 설명이다. 언어, 국적, 주류 사회와의 동화정도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한국인, 조선족, 탈북자가 지

1) 이주이론은 이주의 기본적으로 각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송출지에서의 ‘압출요인’과 유입지에서의 ‘흡입요인’, 이주결정을 촉진시키거나 가로막는 ‘장애요인’에 대한 복합적 설명이다. 이후의 신고전경제학, 행태주의, 이중노동시장 및 구조주의 등의 이론적 사조들 역시 기본적으로 이 토대 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관점에 따라 이주를 통한 이주자 개인의 효용 극대화, 유입지에서의 이주자의 경제적 혹은 사회적 역할, 이주를 촉진시키거나 가로막는 경제, 사회, 문화, 제도 환경의 변화에 각각 방점을 둘 수도 있다.

2) 조선족 이주자의 다수가 이주회로에서 하층회로에 속하기 때문에, 책에서 다루는 내용의 대다수는 하층회로 이주자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한층 더 나아가, 이주를 통한 계층 이동의 경험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창조계급류의 글로벌 인재의 이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니는 계급적 지위가 달라졌음을 설명한다. 또한, 계급지위의 분화에 따라, 그들 각자의 행동양식이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이주가 송출지에서 유입지로의 단선적 이동이 아니며, 이주와 정착, 귀환, 재이주에 대한 고민과 선택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더욱 복잡한 현상임을 강조했다.

동북아의 근현대 역사 속에서 조선족 이주의 역사는 세계화에 따른 자본, 노동의 활발한 이주의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1차 이주에서부터 개혁개방 이후 중국 국내 대도시로의 이주 그리고 한국³⁾이나 일본, 미국 영국 등으로의 국제이주와 중국 내 고향과 이주지역을 오가며 생활하는 중간자적인 삶의 양식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삶의 여정은 사실 이주자 연구에서 다루는 수많은 논제들의 대표성을 지닌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한국어와 중국어를 활용하여 현지에서 자신만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할 뿐 아니라 자유롭게 중국인 커뮤니티 및 한국인 커뮤니티에 자연스럽게 융화되기도 한다. 이주의 경험이 일종의 집단지성으로 남아 있어, ‘이주’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가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조선족의 계급적 지위의 상대적 변화가 발생하기도 하며, 이는 새로운 정착지에서 전개될 그들의 삶의 양태와 향후의 재이주 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기능한다.

저자가 이 책에서 바라보는 현대적 국제이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주 그 자체가 자본주의적 글로벌화에 따른 보편적, 일상적 현상이라는 점이다. 송출지로부터 유입지로의 이주라는 방향성이 모호해졌으며,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재이주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3) 조선족의 중국 국내에서의 이주의 결정적 계기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에 있다.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모국어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중국진출 초기 중간 관리자로서 이들의 역할은 지대했다.

다음으로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 수단의 발달로 이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개인의 측면에서 국제이주가 숙고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SNS와 인터넷을 통해 기존 송출지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유입지에서도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쉽게 이주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실제, 이주 후에도 기존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저자는 ‘일상화된 이주’라는 점에서 이주와 관련된 어떠한 규범적 판단도 내리지 않고 있다. 다만, 이주자들이 이주를 선택하게 된 동기, 정착과정, 이에 관여하는 수많은 국가적, 국제적 수준의 제도와 환경을 묘사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이주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 이주 그 자체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현상이고, 여러 가지 정황상, 이주자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큰 한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주 그 자체가 장려되어야 할 만큼 규범적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머지않아, 적극적인 이민 장려 정책 이외에는 한국 사회를 유지해 갈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주자가 현지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며,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대안을 만들어 이민을 받아들여야 하며, 이주자의 국내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미 국내에 적잖은 외국인들이 이주해 있다는 점이다. 전문 기술자와 고학력숙련노동자 뿐만 아니라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 결혼 이주자를 비롯한 여러 유형의 외국인들이 합법, 불법에 관계없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개방경제 체제하에서 자본과 노동의 국제적 이동은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내 고용시장에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비숙련 노동자와 경쟁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없이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 유입된 외국인을 인적자원으로서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조선족 이주자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이주자 그 자체라기보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전개되는 이들의 행동양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어떻게 사회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케 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관점에서 이주는 더 나은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주된 삶의 터전을 바꾸는 행위이다. 그러나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이주란 송출지에서는 잉여 노동력을 경제적 기회가 있는 곳으로 송출하여 역내의 생산요소의 과잉을 해소하는 행위이고, 유입지에서는 부족한 노동력을 인력수입을 통해 보충하는 행위이다. 외부 인력의 도입은 노동력의 보충인 동시에 국내 시장규모의 확대이기도 하다. 이주자는 유입지역 내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주민들과 한정된 고용기회와 자원을 놓고 대립하는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주는 다양한 출신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한 사회에 모여 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주지역의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사실, 이제 막 재중유학생의 대열에 첫발을 내디딘 학생의 입장에서 이 책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공감하면서 빠르게 읽어낼 수 있었던 책이었다. 나 스스로를 학업을 위해 잠시 해외에 나와 있는 것으로 여기지만 그것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조선족 인터뷰이(interviewee)들과 모종의 유대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과 감정적으로 동화되지 말고, 객관적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들어왔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서평을 쓰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내 주변에서 발생한 많은 일

들은 나 자신이 이미 “후기 조선족” 혹은 “신선족(新鮮族)”이 되어가고 있음을 자각하게 했다. 또, 유학생인 내 신분은 이주회로의 상층과 하층의 어디쯤에 속하는 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 또한 장소와 상황에 따라 계급적 지위가 변화했던 조선족 이주자들의 현실과 어느 정도 맞닿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저자가 21세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동’과 ‘이주’ 사이의 어느 지점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조선족인’ 현실에도 맞닿아 있는 것 같다.